

이렇게 기도합니다

눅 18:1-8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올해는 우리교회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호흡과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열쇠와 같고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많은 기도에 관한 책을 저술한 E. M. 바운즈는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즉 세상은 기도로 형성된다. 기도가 많은 세상일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며,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을 이기는 힘도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의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낙망치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부탁하시면서 한 과부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다 같이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자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쉽게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재판관은 과부에게서 뇌물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는 가진 것이 없기에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재판관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 절에는 "늘 그를 찾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늘 찾아 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찾아 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망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어도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재판관이 번거로워 할 정도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구니 그의 소원대로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하였습니다. 그녀의 각오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갈 작정이었고, 여기에 재판관이 그녀의 집념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본문 1 절도 "항상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속, 항상, 밤낮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다"는 말의 뜻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바치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세군 창시자의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하여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 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눅 22:44 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야고보서 5:17-18 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행 12:5)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손발에 채고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삼상 1:10)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같이 되었겠습니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 절을 보면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서로 간에 신뢰는 깨어지고 불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나 하는 것과
자신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과
자신의 믿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잘 다듬어진 내 얼굴이나 옷맵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을 보자고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 드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반드시 주님께 상달된다는 것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절대로 낙망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구하기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기도를 명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7-11 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는 그가 가진 백화점 지점만 해도 160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안 바쁘면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두 시간 기도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세 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일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바쁠수록 예배도 더 많이 빠집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주십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도, 기도하기가 싫어도, 기도할 줄을 몰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존재의 목적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갈 6:9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선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축복이요, 열쇠입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